2023 ANNUAL REPORT

활동 보고서

전쟁 없는 세상

인사말

우공 운영위원

2023년 전쟁없는세상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20년간 이어온 평화활동 기록을 공유하고 기억하는 행사를 숨가쁘게 진행했습니다.

5월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이자 전쟁없는세상 창립일에 맞춰 태국 최초의 병역거부자 네티윗 초청강연, 웨스트파푸아와 호주에서 무기거래감시운동을 해온 활동가들과 함께 국제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6월 20주년 아카이브 전시 '추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는 긴 활동 시간이 묻어 있는 간행물, 회의록, 책, 사진, 현수막 등을 전시하여 병역거부운동 20년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 전시는 새로운 캠페인으로 비폭력트레이닝, 무기거래감시운동이 자라나온 활동의 토양을 살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국내외 병역거부자, 평화활동가, 연구자들이 모여 병역거부운동을 진단하고 활동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독일, 영국, 태국, 핀란드, 러시아, 스위스, 튀르키예,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온 평화활동가들이 모여 4일 동안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평화운동의 경험을 서로 나눴습니다. 국제회의에 함께한 이스라엘 병역거부자인 평화활동가 오르는 2차 세계대전이 결국 종식되었듯 지금의 전쟁도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며 말했습니다. "나는 희망과 신념을 버릴 수 없다." 오르처럼 각자의 현장에서 "평화라는 이름의 언어"(전시 후기 중)를 만드는 활동가들의 토론 열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활동가들의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열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전쟁없는세상의 홈페이지 단체 소개글을 다시 차분히 읽었습니다. 전쟁이 일상에서의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도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말. 우리 일상과 사회 구조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다짐. 2023년 우리는 이 신념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전쟁없는세상 회원들과 함께 평화 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이 있어 우리는 이 무게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무기박람회인 DX KOREA에 비폭력 직접행동으로 저항한 활동가 8인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음 이 재판에 항의하는 탄원과 모금을 기획할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무기박람회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된 장갑차에 오르고 평화를 연주한 우리 자신에게 더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무기를 사고 팔아 막대한 이익을 보는 이들의 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윤과 권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지속하는 죄는 오로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냐고 강력히 묻고 싶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물음과 당당함에 함께 해주셨고,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평화를 위한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4년에도 전쟁없는세상은 더 많은 희망과 신념을 일상에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멈출 수 없습니다.

2024년 2월

목차

02 **인사말**

04 전쟁없는세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6 전쟁없는세상의 **조직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08 전쟁없는세상의 20년, **한눈에 보기**

10 20주년: 국제회의
'무기거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14 20주년: 병역거부운동 역사 전시
'추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18 20주년: 국제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진단과 모색'

22 2023년 주요 활동: **무기박람회 아덱스 저항행동**

25 2023년 주요 활동: **비폭력 직접행동 재판**

28 2023년 전쟁없는세상은 **그밖에 무엇을 했나요**

34 2023년 **타임라인**

36 전쟁없는세상 **재정보고**

38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원인들**

39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세요**

전쟁없는세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 · 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창립 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기박람회 저항 프로그램', '전쟁거부자 조직 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무기박람회 저항 프로그램

무기거래와 무기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 무기박람회에 저항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아덱스, DX KOREA 등 국내 4대 무기박람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무기박람회 행사장에서 무기거래를 방해하는 액션을 합니다.

2

전쟁거부자 조직 프로그램

병역거부를 비롯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는 개인들의 시민불복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반전운동으로 조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병역거부 난민 지원, 병역거부자 상담 및 대체복무제 개선, 그리고 새로운 전쟁거부 사례를 발굴하는 활동을 합니다.

“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쟁없는세상의
조직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각 활동기구는 전쟁없는세상이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입니다.

총회

전쟁없는세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매년 초 개최되는 총회입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운영위원의 인준 및 해임, 예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등 단체의 기본적인 구조와 활동 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운영위원회

총회는 단체의 운영을 위해 상설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합니다.

2023년 운영위원: 가람, 오리, 용석, 쭈야, 뭉치, 쥬, 우공, 악희

사무국

각각의 프로그램/캠페인 활동을 코디하는 동시에 전쟁없는세상의 홈페이지, SNS 관리, 재정 및 회원 관리 등 단체의 관리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2023년 사무국 활동가: 오리, 용석, 쥬

활동기구

전쟁없는세상은 캠페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메인 프로그램 외에도 '마음의 소리 위원회', '모금홍보 위원회',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주요 활동기구**

무기박람회 저항 프로그램 (저항자들)

무기박람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축소, 중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2023년 저항자들에서는 쥬, 오리, 쭈야, 뭉치, 아침, 재욱, 하늬가 함께했습니다.

전쟁거부자 조직 프로그램 (거부자들)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시민들을 조직하고 전쟁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 캠페인을 합니다. 2023년 거부자들에서는 용석, 안악희, 가람, 이담이 활동했습니다.

마음의 소리 위원회

사무국원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슈들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가람과 쭈야가 구성원입니다.

모금홍보 위원회

전쟁없는세상 특성을 잘 살려 모금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용석, 우공, 뭉치, 승호가 모금홍보 위원회 구성원입니다.

비폭력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 트레이닝 진행자(촉진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코디네이터 펭귄과 10여 명의 트레이너들이 망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주년 행사 TF

20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 따로 TF를 구성했습니다. 5월 '무기 거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국제회의, 6월 병역거부운동 20주년 역사 전시 '추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진단과 모색'을 각각 TF를 구성해서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20년, **한눈에 보기**

2023년은 전쟁없는세상이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치렀는데요, 활동보고서에서 2023년의 다양한 행사를 만나기 전에 전쟁없는세상 20년의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살펴보세요. 더 자세한 20년의 역사는 온라인 전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3
5월 15일
전쟁없는세상 창립

2004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운동 연대 시작

2007
- 무기감시운동
  세미나 시작
- 정부, 대체복무
  도입 발표

2008
- 착한무기프로젝트
  (현 무기박람회
  저항 프로그램) 시작
- 국방부, 대체복무
  도입 결정 번복

2009
확산탄 금지
캠페인 시작

2011
강정마을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운동
연대 시작

2012
- 비전워크숍 진행
- 비폭력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트레이닝을
  개발, 보급하는
  비폭력 프로그램 시작

2013
무기박람회 아덱스 저항행동 시작

2015
제6회 이돈명 인권상 수상

2016
- 예비군 훈련 병역거부 기자회견
- 무기박람회 DX KOREA 저항행동 시작

2018
- 헌법재판소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대법원 병역거부자에 첫 무죄 선고

2020
- 대체복무 시작
- 제2회 노회찬상 정의 부문 수상
-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2022
비전워크숍 진행

2023
- 성유보상 수상 (아덱스 저항행동)
-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

20주년

국제회의
무기거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5월 셋째 주에는 태국과 호주, 웨스트파푸아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을 맞아 초청강연부터 국제회의, 국제연대 집회, 내부 전략회의까지 다양한 행사가 한 주를 장식했습니다.

초청강연

세계병역거부의 날이기도 한 5월 15일에는 태국 최초의 병역거부자 네티윗과 동료 활동가 세타난이 〈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저항,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네티윗은 태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태국은 13차례의 쿠데타와 계엄령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군부가 정치를 독점해왔습니다. 이에 억눌려왔던 태국 시민들이 민주화의 열망을 분출하고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고, 마침 강연 직전 치러진 총선에서 징병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네티윗은 살생하지 않겠다는 마음, 군대는 폭력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신념 등으로 병역거부를 결심했습니다.

이어서 세타난은 태국 징병제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태국의 남성은 21세가 되면 동네마다 모여서 제비뽑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통에 든 표를 뽑아, 빨간색 표를 뽑으면 2년간 군복무를 하고 검은색 표를 뽑으면 군 면제에 당첨되는 행사입니다. 세타난은 '가진 자'들은 의사진단서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하기 때문에 결국 계급적 불평등이 생긴다면서 징병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무엇이 군대를 떠받치고 있는지, 군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근원적 질문을 다시 곱씹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회의

5월 16일에는 국제회의 <무기거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가 열렸습니다. 1부는 한

국의 무기 수출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8~2022년 기준 세계 9위이며, 수출 증가율로 따지면 세계 1위에 이릅니다. 정부도 기업도 무기 장사를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물대포, 소총, 수류탄, 곡사포, 장갑차 등 한국에서 수출한 다양한 무기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웨스트파푸아 등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의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쓰입니다. 웨스트파푸아 인권활동가 에스더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외치고 있는 웨스트파푸아의 상황을 절절히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채굴과 개발을 위해 들어오는 외국 자본(한국 기업 포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웨스트파푸아 사람들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민주화' 전후로 시위를 진압하는 데 다양한 장비가 쓰인 것처럼 말입니다.

2부는 무기거래와 페미니즘, 그린워싱, 난민, 기후위기 등 무기거래 의제의 교차성을 다뤘습니다. '무기'는 사람에게만 쓰이지 않

습니다. 무기는 공격 대상 국가가 어디인지 가리지 않듯 '존재' 역시 가리지 않으며, 존재 자체를 볼모 삼아 무기로 만들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HIV 감염인 죄수들에게 치료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감옥에서 천천히 죽든지', '참전해서 치료받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당한다고 합니다. 군견은 처음부터 존재가 아니라 '군수품'으로 동원되고 거래됩니다. 작전 지역에서 급히 철수할 때 군견은 '불필요한 군 장비'이기 때문에 전장에 그대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난민이었던 이들은 또 다른 난민을 발생시키는 국가폭력에 가담하는 형태로만 시민권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전쟁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파괴합니다. 즉각적으로 불태우고 폐허로 만들기도 하지만 땅과 바다에 축적된 오염은 긴 세월에 걸쳐 악영향을 끼칩니다. '군대'를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면 전 세계에서 네 번째 탄소 배출국에 해당합니다. 군사 훈련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군대와 군사 장비를 추구할수록 더 많은 기지와 훈련지가 필요

합니다. 기지를 만들고 무기를 사용하면서 축적되는 '느린 폭력'과 비용들은 국가와 기업의 장부에서 책정되지 않습니다. ESG 경영을 독려해도 '환경을 덜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 뿐 무기 사슬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짚지 않습니다. 이렇듯 무기거래를 지탱하는 사슬, 무기를 매개로 한 폭력, 그 폭력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다양한 담론과 이념들이 서로 얽혀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연대 집회

5월 17일에는 〈러시아와 태국의 병역거부자/난민들과 연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려는 푸틴의 징집 요구에 반발해 수십만 명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그중 200명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후 난민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며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들에게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남은 5명은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 출입국대기소

에 갇혔습니다.

행정법원은 난민 신청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난민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편을 들어줬지만,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또다시 난민 신청자들은 영종도의 출입국지원센터에 기한 없이 구금되었습니다.(2024년 현재, 5명 가운데 3명은 결국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영종도를 떠나 난민 심사 대기 중이고, 2명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 정부가 난민 인정에 관한 국제법 기준에 따라 시급히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태국 대사관 앞까지 행진을 마친 뒤, 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멈추기 위해, 태국 군사정권의 권력과 군사주의에 균열을 내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억압을 세상에 이야기하고 연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부 전략회의

5월 18일 행사는 비공개로 치러진 내부 전략회의였습니다. 무기거래 감시 운동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대가 왜 필요하고, 연대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는 왜 무기박람회에 주목하며, 국제연대 활동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온 젤다로부터 무기박람회 랜드포스(Land Forces)를 브리즈번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한 랜드포스 방해행동(Disrupt Land Forces)의 성공 사례와 전술들을 전수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국제 회의 '무기거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자료집을 보시려거든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시

추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전쟁없는세상과 병역거부운동이 걸어온 20년의 역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카이브 역사전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 동안 열 번이나 이사를 다니며 풀었다 싸기를 반복하다 보니 여러 겹의 박스로 포장된 옛 자료들을 하나 둘 꺼내서 분류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회의 문서, 토론회 발제문, 20년도 넘게 지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솔비 님이 기획협력(큐레이터)으로 참여해 전시의 전반적인 콘셉트를 잡고, 세부적인 진행을 책임져주셨습니다.

전시 기획 및 구성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결코 짧지 않은 20년의 역사를 방대한 양의 실물 자료와 함께 잘 전달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도전이자 목표였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시간을 펼쳐놓은 공간 속에서 '병역거부운동이 어떻게 군대에 가는 남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투쟁으로 흘러가지 않고 수많은 존재와의 연결 속에서 모두의 평화를 외치는 비폭력 운동이 되었는지, 전쟁에 반대한다는 거대한 선언은 어떻게 일상을 바꾸어 나가는 작은 외침과 만나게 되었는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한국 사회의 여러 현장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

회운동과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전시 설명글에서 발췌) 같은 질문을 전시 관람객들이 마주하기를 바랐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자료를 살펴본 솔비 님은 전쟁없는세상이 걸어온 20년의 시간이 마치 전쟁 같은 속도전이 지배하는 현실의 시간과는 다른 SF적인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감상을 남겼는데요, 여기에 착안해 김초엽 작가의 SF 소설 제목을 따와 '추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고 전시 제목을 붙였습니다. 상수역 인근 전시장 탈영역 우정국에서 6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한 전시에 400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연표 : 전쟁없는세상과 병역거부운동의 2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표로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탄생,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하거나 기획한 굵직한 캠페인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과 지지자, 후원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의 순간들을 연표에 기록하는 동시에 평화운동이 마주한 국내외의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연표에 넣어 전쟁없는세상의 활동이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시간'을 전쟁없는세상의 시간과 한국사회의 시간에 포개어 보았습니다. '개인의 시간'은 다양한 연령과 지역, 젠더를 반영하여 가상의 인물들의 개인적인 일상을 픽션으로 서술했는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정치적이고 공적인 시간들 사이에 각자의 삶을 접속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아카이빙 테이블 : 전시장 가운데에 유유히 흐르는 테이블 위에는 지난 20년 동안 전쟁없는세상이 쌓아온 각종 실물 자료의 원본을 두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과 병역거부 연대회의의 회의록, 병역거부운동 이야기가 실린 여러 간행물과 언론 기사, 전쟁없는세상의 각종 행사 방명록과 참가자들의 낙서가 쓰인 손때 묻은 자료집 같은 공적인 자료의 원본들 사이로 병역거부자들과 전쟁없는세상이 주고받은 편지처럼 사적인 자료가 시간의 흐름대로 배치되었습니다. 병역거부운동으로 시작한 전쟁없는세상의 활동이 어떤 시간 속에서 무기거래 감시운동으로 발전해 왔는지, 활동가들의 고민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테이블 곳곳에는 전쟁없는세상이 발행한 〈병역거부운동 여성활동가 인터뷰집〉의 문구를 발췌해 배치했는데요, 안보 분야에서 군사주의가 어떻게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지, 그리고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병역거부운동에서 성차별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장치였습니다.

시위 물품, 사진, 책자, 기타 등등 : 전시장의 다른 벽면에는 전쟁없는세상이 그동안 펼쳐왔던 다양한 액션,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현수막과 피켓, 그리고 프린트된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양심을 석방하라”, “모든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 평화를 지키는 군대는 없다”, “퀴어천국에는 군대가 없다”, “평화에게 기회를” 같은 문구가 쓰인 현수막과 피켓은 전쟁없는세상이 그동안 외쳐온 구호들을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액션 그룹인 전쟁없는세상은 20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액션을 해왔는데, 잦은 이사와 좁은 사무 공간 때문에 많은 물품이 유실된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없는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꾸준하게 발행해 온 소식지와, 전쟁없는세상이 발간한 단행본 및 소책자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은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참여 : 병역거부자이자 영화감독인 김경묵 감독은 자신의 작품 〈5.25㎡〉으로 전시에 함께 했습니다. 이 작품은

독방의 경험을 VR로 구현한 것으로 김경묵 감독의 개인전에 처음 선보였던 작품입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5.25㎡〉 작품 체험을 통해 병역거부운동이 거쳐온 시간의 한 장면을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전시물품이 20년의 세월을 시각적으로 채웠다면 오로민경 작가의 곡 '추신: 빛의 곁에선 시간들을 지지하며'는 소리로 전시장과 20년 역사의 공간을 채웠습니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의 집회 발언, 병역거부자들의 선언이 잔잔하지만 단단한 멜로디와 더불어 전시의 시각적인 요소들이 채우지 못했던 빈 곳을 채워주었습니다. 시각 디자이너이자 평화활동가인 랑은 전시 연표와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 디자인으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 : 전시 오픈을 알리는 오픈 토크, 극단 '종이로 만든 배'와 '몹쓸 밴드'의 오픈 공연을 시작으로 일주일의 전시 기간 동안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들이 전시를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취재하고 돌아온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님의 강연, 평화학 연구자인 정희진 선생님이 말하는 병역거부운동과 여성주의, 돌고래해방운동이 평화운동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이야기해준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대표님 강연이 전시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전시

전시를 꼭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혹은 전시에 다녀갔지만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를 오픈했습니다. 오프라인의 모든 전시물을 다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전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던 연표와 아카이빙 테이블을 온라인으로 구현했습니다.

온라인 전시 구경하기
https://exhibition23.withoutwar.org/

국제컨퍼런스

양심적 병역거부, 진단과 모색

2023년은 대체복무제도가 시작된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첫 대체복무요원이 3년 간의 복무를 마쳤고, 1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임기도 마무리되었죠. 도입 초기부터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과 교정시설로 국한된 복무 영역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을 받아온 한국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2023년에도 안팎에서 문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복무기간 단축과 복무영역 확대, 비합숙복무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고, 유엔자유권위원회도 제5차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 기간을 줄이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고,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병역거부의 의미는 과거에 비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군 입영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의 군사화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여성병역거부자들이 등장했고. 한국군 징집대상은 아니지만 자국의 전쟁을 거부하며 한국으로 온 병역거부자 난민들도 존재합니다. 한국군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도 기후정의, 동물권과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병역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병역거부운동에 대해 터져 나오는 다양한 변화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쟁없는세상의 병역거부운동을 한 단계 더 전진시키기 위해 국제컨퍼런스 '양심적 병역거부, 진단과 모색'을 기획했습니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행사 기간 동안 연인원 150여 명이 참여해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일에는 컨퍼런스에 참가한 국제활동가들과 함께 병역거부운동에서 국제연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의논하는 내부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대체복무를 돌아보며: 문제점과 개선점

대체복무제도 시행 3년을 맞아 현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모색하는 포럼을 국

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의 축사로 시작된 포럼 1부에서는 대체복무 중인 병역거부자 길완 님과 시우 님이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경험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자 징병제 연구자인 강인화 님께서는 대체복무와 징병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재 병역거부자 심사의 양상과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 심사위원인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님은 복무영역의 확대에 초점을 맞춰 대체복무 개선 방향을 짚어주었고,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안악희 님은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 인정과 심사위원회의 독립기구화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엔의 인권기준에서 병역거부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발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조사관 다니엘 목스터의 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대체복무제도 확대가 병역거부운동과 독일 사회에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커넥션의 활동가 루디가 이야기해 줬고, 핀란드 AKL의 활동가 마티아스는 핀란드의 징병제도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완전거부 전략을 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퀘이커 유엔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레이첼이 병역거부운동이 유엔 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다양하고 창의적인 여러 방식과 접근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아시아의 병역거부

국제포럼 둘째 날에는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병역거부운동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

련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지리적으로도 무척이나 넓은 지역이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병역거부운동의 모습과 각국에서 병역거부운동이 도전하고 있는 군사주의의 모습도 사뭇 달랐습니다.

5월에도 한국을 방문해 태국의 징병제와 자신의 병역거부에 대해 발표했던 네티윗의 이야기는 다시 들어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때문에 더욱 주목받은 이스라엘의 여성병역거부자이자 페미니스트 평화운동 단체인 뉴프로파일 활동가 오르가 들려주는 이야기 또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로 군사화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여러 예시는 듣는 것만으로도 섬찟한 기분이 들게 할 정도였는데요, 예를 들면 태아의 초음파 사진에 베레모를 씌운 '태아 군인' 사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군사회 된 사회에서 이스라엘 병역거부자들은 손가락질당하고 신변 위협까지 당하며 활동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터키 또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이 무척 많은 나라인데요, 터키의 병역거부운동에 대해 메르베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군사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징병제도와 결합하여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메르베는 터키 여성병역거부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터키도 한국처럼 여성은 법적인 징집대상이 아니었지만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맥락에서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여성병역거부 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병역거부

이후 이어진 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선 전 세계의 병역거부운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살고 있는 평화활동가이자 병역거부자인 유리 셸리아젠코는 온라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평화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평화활동가들이 함께 전쟁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출신 평화활동가 타라스 A와 나탈리아는 전쟁이 일어난 뒤 러시아 안에서 진행되는 반전평화운동을 MCO(the Movement of Conscientiou Objectors)를 중심으로 소개해주었습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러시아 안에서 정치적 탄압을 피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저항을 조직하는 다양한 사례를 알려주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병역거부자 난민이 된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고 난민이 되는 것을 선택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의 병역거부자 난민을 지원하는 캠페인 '#ObjectWar'를 커넥션 활동가 마라가 소개해주었고, 이어서 한국에 온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지원 활동에 대해서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가 소개했습니다.

분량상 국제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컨퍼런스의 발표 자료를 보시려거든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 아키이브를 참고하시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2023년 주요 활동

무기박람회 아덱스 저항행동

2년마다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ADEX에는 각종 살상무기들이 전시되고 각국의 군사관계자들과 무기상인, 무기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무기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이나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들도 ADEX의 'VIP'로 초대됩니다.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해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평화단체들은 2013년부터 '아덱스 저항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ADEX의 비윤리성을 알리고 ADEX 중단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시기는 마침 10월 7일 교전으로 이스라엘-가자지구 전쟁이 전면화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과 고통에 슬퍼하고 있던 때에 만찬장에서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바로 그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들을 사고파는 데 여념이 없는 무리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에 맞서 2023년 아덱스 저항행동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합니다.

환영 만찬장 액션

ADEX 개막 바로 전날인 10월 16일 서울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무기상인들과 'VIP'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아덱스 저항행동과 플랫폼C,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활동가들은 만찬이 열리는 호텔 앞에 모여 이들을 규탄했습니다. 분주하게 드나드는 차량들 속에 군 관계자와 무기산업 종사자들이 만찬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잘 보고들을 수 있게 전쟁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관을 옆에 두고 **"전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내 이웃이 너로 인해 죽었다"**고 외치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비즈니스데이 액션

ADEX의 비즈니스데이 기간에는 무기상인들과 각국의 무기획득 담당자들이 적극 교류하

며 무기거래 상담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비즈니스데이 둘째 날과 셋째 날, 아덱스 저항행동 활동가들은 전시장 곳곳에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10월 18일에는 세계 최대 무기회사인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전쟁 희생자를 상징하는 복장을 하고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9일에는 '아시아 방산 시장 브리핑'이라는 세미나가 전시장 한편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실 앞에서 **"아시아는 너희의 시장이 아니다", "무기상인들이 아시아에서 전쟁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퍼블릭데이 액션

ADEX 기간에는 많은 일반 관람객들 역시 에어쇼와 전시를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습니다. 무기와 군사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되는데요.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이 방문합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ADEX에 방문한 일반 관람객들에게 ADEX가 오락을 위한 행사가 아닌,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퍼블릭데이 첫 날인 10월 21일 행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선 가운데, 아덱스 저항행동은 행사장 입구에 〈무기거래의 진실〉 전시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세계 각지에서 탄압과 학살에 쓰인다는 것을 전시를 통해 알리며, 방위산업 전시회의 진짜 이름은 살상 무기 전시회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무슨 에어쇼?〉라는 물음을 모토로 현수막과 피켓 등의 문구를 정했습니다. 이에 맞춰 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청년기후긴급행동 등의 단체들을 초대했습니다. 전시장 옆에 부스를 차려놓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가자지구와 여러 분쟁 지역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동식물을 애도하는 모의 장례식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예술가들은 붉은 천을 머리에 감고 전시장 입구까지 행진했고, '다이인

Die-in' 퍼포먼스를 하며 평화를 외쳤습니다.

팩스 탄원

ADEX 개막 두 주 전부터 폐막일까지 약 3주간 ADEX 중단을 요구하는 팩스 탄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열띤 참여로 짧은 시간 동안 **무려 2천여 건의 탄원서를 ADEX 공동운영본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으로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ADEX 공동운영본부에서 탄원에 답신을 보내줬는데요. "서울 ADEX는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창출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라는 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각종 상 수상

아덱스 저항행동의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12월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는 제9회 성유보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언론자유운동과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하셨던 고 성유보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상입니다. 성유보특별상 선정위원회는 심사평에서 **"국제 분쟁, 안보 경쟁이 이어지는 지금, 10년 동안 이어온 아덱스 저항행동의 평화 메시지에 힘을 보태고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군축을 위한 반전 행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단체가 저항행동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다양한 방해와 전시, 예술적 행동을 통한 방위산업에 대한 저항"은 저항의문화상(Cultures of Resistance Awards)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 한국계 브라질인 이아라 리 감독이 시작한 저항의문화상은 창의적인 행동, 예술적 표현 및 기타 사회적 의식을 가진 노력을 지원하는 상입니다.

2023년 주요 활동

비폭력 직접행동 재판

2022년 9월 22일,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에서 평화활동가들이 전시된 전차와 장갑차 위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로 평화를 연주하고, 방위산업 전시회의 실체를 고발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저항행동에 사법당국은 DX KOREA 조직위원회의 업무가 방해됐다며 활동가 8명에게 도합 1700만 원의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23년에 세 차례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별모금

8월에 첫 번째 공판이 열리기 전 한 달여 동안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 특별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은 전쟁산업에 저항하는 직접행동과 법률 대응을 위해 전쟁없는세상이 2022년에 조성한 기금입니다. 기소된 활동가 한 명 한 명을 전면에 내세워 모금을 진행했고, 전쟁없는세상이 벌금에 굴하지 않고 전쟁범죄자, 무기상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300명이 넘는 분들이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무죄 탄원과 방청 조직

첫 번째 공판과 두 번째 공판 사이에 진행된 무죄 탄원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 50여 개 단체와 900여 명의 개인이 무죄 탄원서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이대훈 소장님과 영국 무기거래반대캠페인(CAAT) 활동가 커스틴 베이즈는 무죄 취지의 전문가 의견서를 써주셨습니다. 특히 커스틴은 의견서에서 영국의 여러 공공기관이 무기박람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현 런던 시장인 사디크 칸은 런던에서 열린 DSEI 무기박람회에 반대하며 주최 측에 "행사를 취소하고 다시 오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DSEI 무기박람회가 열리는 뉴햄 자치구 의회는 무기박람회가 "혐오스럽고 반갑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 동안 리버풀과 글래스고 시 정부는 그곳에서 열린 무기박람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나 무기박람회에 대한 비판적

인 입장이 소수에 불과한 한국 사회에 더 많은 표현의 자유와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10월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핑크색 옷과 장신구로 맞춰 입은 방청객들이 재판정에서 뭉치 활동가의 피의자 신문과 기소된 활동가 전원의 최후진술을 지켜보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사의 주장에 맞서 활동가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12월에 열린 선고공판의 결과는 전원 무죄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인들이 **"행사 관계자나 관람객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DX

KOREA 조직위원회가 평화활동가들의 비폭력 행동을 고발한 것이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범죄자는 우리가 아니라 전쟁 무기를 만들고 팔아 이윤을 남기며, 수많은 이들을 학살한 무기 회사들입니다.

무죄 축하 파티

무죄 선고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12월 15일에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의 계기가 된 DX KOREA 2022에서의 비폭력 직접행동과 특별모금, 재판 투쟁, 그 사이에 있었던 2023년 아덱스 저항행동, 무죄 선고까지의 과정을 담은 슬라이드 영상이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1, 2부로 나뉘어 문화평론가 손희정 님의 사회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는 재판 당사자 중 전쟁없는세상의 오리, 쥬와 재윤 님, 혜성 님이 나와서 소감을 나눴는데, 특히 모금 페이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재윤 님과 혜성 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2부에는 무죄가 나오는 과정에서 전쟁없는세상과 함께한 소중한 조력자들 중 당인리교회 담임 목사 스카

님, 〈장기자랑〉의 감독인 이소현 감독님, 전쟁없는세상 후원회원 소라 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티라면 무릇 즐거운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쭈야와 쭈야의 동료들이 함께 하는 바디퍼커션그룹 녹녹이 몸으로 만드는 숲의 소리, 펭귄이 만들어 아덱스 저항행동 때도 불렀던 노래, 펭귄과 쭈야가 장갑차 위에서 연주했던 아일랜드 음악이 아름드리홀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비록 검사가 항소하면서 2024년에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지만, 이번에도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2023년 전쟁없는세상은
그밖에 무엇을 했나요

아무래도 활동보고서라는 것은 한 해 동안 단체가 진행했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고 외부적으로 잘 알려진 활동들을 주로 포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은 중요하지만 언론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슈도 많고 행사를 위해서 또 조직운영 측면에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 꼭지는 그런 활동들을 모두 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Q 2022년 비전워크숍을 통해 기후위기를 전쟁없는세상의 새로운 10년 활동주제로 정하고 2023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캠페인을 모색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 상반기부터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가람: 전쟁없는세상이 그동안 1년의 활동을 계획할 때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잡지 않도록 노력해 왔는데 바로 이런 일처럼 갑자기 개입해야 하거나 연대요청이 들어오는 활동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작년 2월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 큐레이터님으로부터 기획 중인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라는 프로젝트에 전쟁없는세상이 함께 해줄 수 있는지 묻는 메일을 받았다. "멸종전쟁"이라는 제목 하에 '군사주의와 기후위기'의 긴밀한 관계를 주제로 3회에 걸쳐 일종의 모의법정처럼 진행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10년의 활동 주제로 기후위기를 모색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별로 없었다.

쥬: 전쟁없는세상은 본 법정의 검사로서 한화와 같은 군산복합체 (그중 특히 무기거래 행위) 및 이를 방관하고 승인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연과 사람에 대한 생태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은 인간 공동체에 여러 세대에 걸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며, 인간 공동체를 지탱하는 복잡한 생태계에도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기후 재앙은 그 자체로 전쟁 범죄, 즉 살아있는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멸종 전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웨스트파푸아의 활동가 로자, 장항습지 지뢰폭파 생존자이시자 환경운동가인 김철기 님,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및 환경오염 피해지역 보령 갓배마을의 상황을 증언해 주신 녹색전환연구소 배보람 연구원을 증인으로 초대해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3일 동안 평화바람, 청년기후긴급행동도 이 법정에 함께 했는데 이 단체들과 이후에 새만금 간척사업과 그 부지에 (군)공항을 짓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수라〉 공동체 상영회를 함께 조직해 합정역 근처 상상마당에서 상영회를 했다.

Q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또 다른 전쟁을 목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현재 25,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다. 그 상황이 너무 처참하지만 역시 한국과는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파병 등의 관련 이슈가 없어서인지 예전 같은 반전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오리: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이 전쟁에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는 않은 것 같다. 얼마 전에 방위사업청 앞에서 집회를 한 것도 이러한 책임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유엔 무역 통계상 한국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스라엘에 약 4,390만 달러(약 570억 원)의 무기(탄약, 포탄 등)을 수출했다. 한국이 수출한 이 무기들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과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내역을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입도했을 때도 전쟁없는세상은 예멘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며 우리의 책임, 그리고 무기거래를 감시하고 중단시키는 것이 곧 반전운동이라는 것을 주장해 왔다.

악희: 무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주민들을 강제이주 시키는 데 사용하는 굴착기를 현대가 수출하는데 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보이콧 대상이 되었다. 전쟁없는세상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지난 3월에 HD현대 주주총회 앞두고 판교 글로벌R&D센터(GR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쟁과 군사화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모든 활동을 전쟁수혜활동이라 규정하기 때문에 현대의 굴착기 수출도 그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만약 현대가 만약 그런 용도를 알고 있다면 전쟁범죄의 공범인 것이고 모른다면 인권 실사가 부족했다는 뜻이고 어느 쪽이든 현대의 인권경영 방침에 반하는 일이다.

Q 한국의 군사비 지출 순위는 10년 만에 한 계단 올라 사상 처음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쭈야: 맞다. 창피한 일이다. 매년 4월 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2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 발표에 맞춰 개최되는 2023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액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021년 대비 3.7% 증가한 2조 2,400억 달러(약 2,980조 원)였고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유럽(13%)이지만 아시아·오세아니아, 미주, 중동 지역에서 군사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부끄럽게 사상 처음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이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분 단위로 계산해 보면 1분에 56억 원짜리 수표를 태우는 셈이다. 반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은 통제는커녕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Q 작년에는 아주 의미 있는 영화제가 새로 시작을 했다 바로 전쟁과 여성영화제다. 여기에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도 초대받았다고 하던데.

가람: 그렇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지원으로 작년 처음 개최된 전쟁과 여성영화제는 전쟁과 재현, 전쟁과 여성, 인권과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호평을 받았다.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지만, 저항은 여성적이다!'라는 캐치 프레이즈가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영화제였다. 3일 동안 진행된 영화제는 국내외 전쟁과 여성의 관계를 다룬 6편의 작품이 상영되었다. 전쟁없는세상은 기획 단계에서 자문으로 참여를 했고 가장 먼저 매진을 기록한 〈악마를 지옥으로〉(지니 레티커)의 씨네토크에도 함께했다. 부디 올해도 열리길 바랄 뿐이다.

Q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있으면 2년째가 된다.

뭉치: 그렇다. 작년 1주년이 되던 시점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는데 벌써 2년이 되어간다.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가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고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는 것을 비판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폴란드에 대량의 탄약을 수출하는 것을 통해 우회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쟁 참여를 거부한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들에게 난민신청할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고 그 시도가 무산된 후에도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우공: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평화주의자들의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 Ukrainian Pacifist Movement(UPM)의 사무총장 유리 셸리아젠코는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했다"는 명목으로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문제 삼은 UPM의 성명 어디에서도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다. 전쟁은,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이 되는 논리가 일상화되는 재난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사건이었다. 전쟁없는세상은 지난 8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과 함께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을 찾아가 항

의서한을 전달하며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평화주의자, 인권옹호자, 법학자인 유리 셸리아젠코와 UPM에 대한 모든 괴롭힘, 협박, 기소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Q 첫 번째 질문과도 연결되는데 2023년에도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기후위기와 군사주의 TF 구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우공: 2023년에 예상보다 20주년 행사를 거하게 하면서 TF를 결국 구성하지 못했다. 2024년에 해야 한다.(웃음)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한 기후위기와 군사주의 관련 글들을 싹 모아서 읽고 내부적으로 쟁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논의된 것은 한국 군사부문 탄소배출에 관한 것, 어떻게 이를 집계하고 줄일 목표를 세우게 할 것인가, 한국기후정의운동에서 군사주의에 관한 반대행동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역과 방위산업, '그린워싱', 탄소중립AI 무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학기술로 과연 탄소제로가 가능한지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캠페인 아이디어들도 나왔는데 일단 올해는 기후위기와 군사주의의 연관성을 알릴 수 있는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논의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캠페인을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TF의 활동을 지켜봐 달라.

쭈야: 기후정의행진을 위해 전쟁없는 세상은 단체 창립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깃발도 제작했다.(웃음) 기후위기와 군사주의의 연관성을 드러내기 위해 '살인수출 탄소수출, 평화파괴 기후파괴, 무기박람회 중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우리는 이 슬로건을 통해 기후정의행진이 끝나는 바로 다음 달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무기박람회 아덱스가 열린다는 것에 대해 알리고 특히 그 아덱스 무기박람회는 에어쇼가 중심이 된다는 것, 전투기는 최악의 연비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기후위기 유발 무기라는 것,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에 힘써도 모자랄 판에 전쟁무기 장사를 하고 자빠졌다는 것, 무기를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한다는 것, 시민들 모두가 무리박람회 저항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 하였다.

Q 작년에는 10년 만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부활하기도 했다.

악희: 그렇다. 6,700여 명의 장병과 200여 대의 탱크와 장갑차, 각종 미사일 등 군사 장비가 서울의 한복판인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고위력 지대지 미사일 현무의 실물이 처음 등장한 행사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우리는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녹색연합, 정의평화기독연대 등의 단체와 함께 시가행진 대열 인근에서 항의 기자회견과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가짜 평화일뿐더러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는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다. 결국 비 때문에 취소되긴 했지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에어쇼를 위해 9월 내내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며 연습 비행을 하던 전투기에서 뿜어내는 탄소와 소음 또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

Q 전없세 내에서 <망치>의 위상이 바뀌고 비폭력 트레이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오리: 2022년까지 비폭력프로그램이 존재했을 때는 비폭력프로그램의 워킹그룹인 피망팀에서 비폭력트레이너네트워크 〈망치〉를 코디했었다. 현재는 위상이 운영위원회가 코디하는 체계로 변화되었고 코디네이터도 사무국이 아니라 트레이너 중 펭귄이 맡아서 하고 있다. 망치는 작년에는 총 13번의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200여 명의 활동가들을 만났다. 특히 2023년에는 광주, 수원, 부산, 부천, 아산 등 지역의 요청이 많았던 것이 두드러진다. 올해는 기후위기와 군사주의 관련한 트레이닝도 TF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어서 더욱 바빠질 것 같다.

Q 전없세 블로그는 작년에도 역시 흥했다.

용석: 그렇다. 2023년은 전없세가 블로그를 개설하고 가장 많은 글이 발행된 해였다. 총 74편이 발행되었고 고정 필자로 [동물+전쟁] 뭉치, 돌고래, 배보람, 혜린 님, [전쟁+만화] 조경숙 님, [전쟁+드라마] 오수경 님이 수고해 주셨다. 고정 필자들 이외도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 후원인들이 다양한 글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잘 부탁 드린다.

2023년
타임라인

1월

3월

- HD현대건설기계 굴착기 이스라엘 수출 규탄 기자회견

5월

- 태국 최초의 병역거부자 네티윗 초청강연
- 20주년 국제회의 〈무기거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 러시아와 태국의 병역거부자/난민들과 연대하는 집회

7월

-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 특별 모금

9월

- 기후정의행진
- 국군의 날 시가행진 항의행동

11월

- DX 재판 무죄 판결
- 20주년 국제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진단과 모색〉

2월

- 전쟁없는세상 총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 · 휴전 촉구 기자회견

4월

- 광주비엔날레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 멸종전쟁〉
-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무차별 학살 규탄 기자회견
-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 〈수라〉 공동체 상영회 및 수다회

6월

- 20주년 아카이브 전시
  〈추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8월

- DX 재판 시작

10월

- DX 재판 무죄 탄원 캠페인
- 아덱스저항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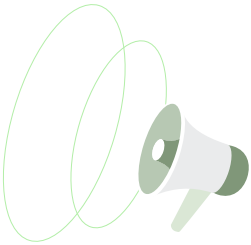
12월

- 제9회 성유보특별상 수상
- 무죄 축하 파티 〈탱크 위의 사람들〉

전쟁없는세상
2023 재정보고

2023년 전쟁없는세상 수입은 2022년에 비해 5,00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원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3,500만 원가량 증가했고 정기, 일시 후원인들, 직접행동 기금과 회비로 함께해준 후원인들이 많았던 덕분입니다.

지출은 2022년에 비해 약 3,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인한 것인데요 먼저 인건비가 늘었고 (2022년 주 5일 2명, 주 3일 1명이던 사무국 활동가들의 근무일수를 2023년에는 3명 모두 주 5일로) 20년 동안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냈던 만큼 사업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입 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비율(%)
후원금	정기후원	94,339,403	60.6
	비정기후원	9,331,398	6.0
기타 사업 수입	강사료, 연대사업수입 등	589,031	0.4
수입이자		33,445	0.0
일반보조금		0	0.0
지원금		50,393,870	32.4
잡수입		500,050	0.3
회비수입		394,500	0.3
총계		**155,581,697**	**100**

지출 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비율(%)
인건비	급여	72,720,000	49.5
	법정복리비	6,563,280	4.5
	복리후생비	1,317,500	0.9
	퇴직급여	4,320,000	2.9
운영비	회의비	1,814,410	1.2
	통신비	1,207,546	0.8
	우편발송비	328,060	0.2
	영상제작인건비	679,300	0.5
	사업관리비	3,509,800	2.4
	사무용품비	247,260	0.2
	지급수수료	4,922,124	3.4
	지급임차료	2,986,900	2.0
사업비	연대사업비	975,078	0.7
	영상제작인쇄비	7,312,860	5.0
	우편발송비	57,330	0.0
	사업행사비	5,022,270	3.4
	통신비	851,221	0.6
	지급수수료	25,970,339	17.7
	지급임차료	5,964,336	4.1
사업 외 비용	잡손실	5,100	0.0
총계		**146,774,714**	**100**

2022년 이월금	2023 총수입	2023 총지출	2023 이월금
32,015,840원	155,581,697원	146,774,714원	40,822,823원

프로젝트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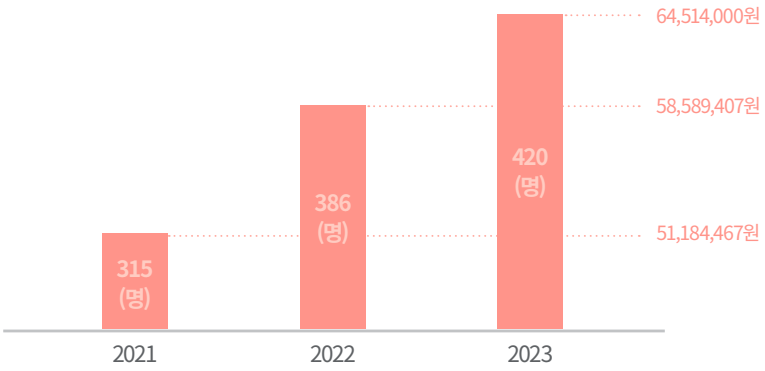
사업명	지원처	금액(원)
2023 [대체복무와 평화] 제도 '도입'에서 '개선'으로	다음세대재단	29,893,870
2023 한국산 무기수출 반대캠페인	바보의 나눔	20,500,000
총계		**50,393,870**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원인들**

2022년 한 해 동안 모두 811명의 개인과 단체가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특히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 모금으로 많은 분들이 전쟁없는세상과 새롭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49명의 후원인이 정기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셨고, 15명이 개인 사정으로 후원을 중단해서, 2023년(12월 31일 기준)에는 전년 대비 9% 성장(34명 증가)하여 모두 420명의 정기후원회원이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월정기후원 회원 변화 추이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세요

전쟁없는세상은 우리의 활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과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재정 대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상근자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각종 캠페인 사업비 등 단체의 여러 활동에 사용합니다.

정기후원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평화 행동에 쏟고 싶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안정적인 활동비를 만들어 주세요.

비정기 • 일시후원

살상 무기 거래에 반대하고 병역거부자와 함께
전쟁에 저항하는 캠페인을 만들어 주세요.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기박람회 저항행동, 다양한 병역거부 등 다양한
직접행동의 실행, 벌금, 재판 비용 등으로 쓰입니다.

후원안내
withoutwar.org/donate
문의: 02-6401-0514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2-921333
예금주: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

전화 02-6401-0514
이메일 peace@withoutwar.org
홈페이지 withoutwar.org
페이스북 facebook.com/withoutwar.org
인스타그램 @withoutwar